

남도서원 36곳에 깃든 찬란한 선비정신

홍살문 옆 은행나무

백옥연 지음



서원(書院)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까지 지방에 건립된 사설 교육기관이다. 제창을 봉행하고 학파의 결집을 도모하는 성리학적 이념을 전승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가르쳤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제창자의 정신이 구현된 공간을 바탕으로 선현들의 삶과 학문을 배우고 익히며 이를 실천의 장으로 모색했다.

지난 2019년 한국의 서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세계의 문화유산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600여 개의 서원이 있다. 비록 장성 필암서원과 정읍 무성서원을 비롯해 모두 9곳이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됐지만, 그 밖의 서원도 문화적 관점에서 우수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남도에도 앞서 언급한 필암서원과 무성서원 외에도 많은 서원이 있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남도의 정신과 가치를 응축시켜 간직하고 있다.

남도 서원 36곳을 답사하고 쓴 책이 출간됐다. 광주 광산구 문화재활용 전문위원(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옥연 씨가 펴낸 '홍살문 옆 은행나무'는 서원이 간직한 선비정신을 담고 있다. 저자는 "갈수록 찾는 사람도 줄고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서원과 향교 그리고 정자와 같은 옛 공간들이 시민들이 찾고 싶은 '지혜의 공간'으로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은 도(道), 덕(德), 인(仁), 예(藝)로 대표되는 선비들의 정신이 응결된 서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벽진서원은 회재 박광욱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제공>

먼저 조선 선비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회재 박광욱이 배향된 광주 벽진서원.

회재라는 호는 회산마을 자택 동북쪽 서실 두 칸을 지어 편액을 회재라 한 것에서 나왔다. 그는 왜란이 일어나자 김천일, 고경명 등과 함께 왜적 토벌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의병을 모집했지만 고령과 노환으로 참전이 어려워지자 사재를 털어 '의병도장'을 설치했다.

정암 조광조와 학포 양광손을 배향한 화순 죽수서원은 '절현(絶絃)을 보여준 두 선비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기묘사회로 정암이 죽자 학포는 그의 시신을 거두고 매년 제사를 지낸다.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이들의 절개에서 남도의 의로운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보성 대계서원에서는 은봉 안방준의 삶과 학문을 만날 수 있다. 은봉은 말과 글이 아니라 삶과 실천을 중요

시했는데 현실적 이해나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자리한 송호영당은 놀재 박상의 정신이 서린 곳이다. 그는 부임지에서 민생 침해를 일삼는 토호 향리를 응징하고 부세를 공평히 매겼다. 시문에도 뛰어나 1200여 수의 방대한 시를 남겼고 송순, 임억령, 정만중 등을 문하에 두었다.

조선 중기 호남시대를 이끌었던 기봉 백광홍은 시와 부에 능해 조선왕조실록에는 송익필, 이산해 등과 당대를 대표하는 '조선팔문장'으로 기록돼 있다. 시문 중 국문으로 쓴 '관서별곡'이 유명하다. 장흥 기암사에는 백광홍을 비롯해 요절한 천재시인 백광훈 등이 배향돼 있다.

한편 이번 책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의 호남한국학 저술·국역 출판 지원을 받아 출간됐다. <도서출판 사람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맨박스, 페미니즘-여성을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주체로 받아들여 달라는 '페미니즘'은 오늘날 위험한 사상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책은 페미니즘과 함께 '남자다움의 굴레'인 맨박스에 대해 얘기한다. '남자다움'에 적합하지 못한 남성은 집단적 압력을 받는다. '마침내 페미니스트가 될 여러분에게'라는 서문으로 시작되는 책은 맨스플레인과 젠더평등, 남성혐오 등에 대해 얘기한다. <우리교육·1만5000원>



▲미디어 아트와 함께한 나의 20년= 대한민국 미디어아트의 산 역사 노소영 관장이 회고하는 아트센터 나비의 20년, 2000년 설립된 아트센터 나비는 디지털 혁명의 태동기부터 그 궤적을 함께해왔다. 책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반응하며 저항하고 비전을 제시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책은 총 9장에 걸쳐 한국에 세워진 미디어아트의 거점, 아트센터 나비의 결실 등을 소개한다. <북코리아·2만5000원>

▲언제든지 스마일=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과 그의 딸이자 미국 해군 최초의 여성 포격술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던 안수산, 가족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낸 책. 한 줄의 신문기사로부터 시작된 역사적 사실을 작가 박경희가 풀어낸다. 본문 곳곳에서는 안창호가

실제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서해문집·1만3500원>

▲조경이야기는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조경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조경에 '진심'인 신경준 농학박사의 책. 조경은 우리의 시야가 닿는 프레임 안에서 아름다운 풍경과 편리함을 논한다. 연못과 그늘막, 조경석 등 하나하나가 독립된 공간으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의 틀과 같다. 책은 총 5장에 걸쳐 조경의 역사, 조경 관련 인물, 조경을 구성하는 식물, 풍수 등에 대해 설명한다. <시간여행·1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돈의 흐름과 돈과 일의 관계에 대한 책. 장난감을 사고 싶지만 돈이 없는 주인공은 엄마를 졸라도 소용없자 결국 돈을 찾아나선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꽃처럼 피어나지도 않는 꽃을 보며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 한다. 그러던 중 팔을 다친 뽕집 아주머니를 만난다. 아주머니가 병원에 다녀오는 동안 뽕집을 지키던 주인공은 그 제사야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게 된다. <뜨인돌 어린이·1만4000원>

▲행복으로 나갈 용기=책의 주인공 아슬란은 사고로 휠체어 장애인인 뒤 후로 스스로를 집 안에 가두고 이방인을 자처한다. 튼튼한 두 다리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신발을 바라보며 세상과 닿을 땀을 흘리지만 남몰래 창 밖을 내다보며 엄마 손을 잡은 작은 아이의 눈에 눈물 짓고 축축한 가지 코에 반가워한다. 책은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용기내지 못하는 모두에게 용원을 보낸다. <한울림스페셜·1만5000원>

▲조금만, 조금만 더=엄마 없이 집을 보게 된 날, 선반 위에 놓인 상자를 발견한 다섯 남매의 우당탕탕 분투기. 상자 하나에서 시작된 아이들의 호기심부터 상상

발코니·서점...기이한 사랑이 느닷없이 시작되는 장소

장소의 연인들

이광호 지음



최근 들어 출판사마다 다양한 에세이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 음식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리즈부터 좀더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시리즈까지 다채롭다.

문화과지성사의 '채석장' 시리즈는 영화감독 에이전 슈타인의 작업 노트부터 뒤라스와 고다르가 나는 대화까지, 논쟁적인 주장을 펼치는 해외의 정치·사회·예술 에세이를 소개해 왔다.

같은 출판사가 1차분 3권을 내놓은 '채석장 그라운드' 시리즈는 국내 필자들의 정치, 사회, 예술 에세이와 사유의 파편들을 다른 새로운 기획이다.

'지나치게 산문적인 거리' 등을 쓴 이광호 문학평론가의 '장소의 연인들'은 연인들의 시간이 장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여러 소설을 통해 탐색해나간다.

책은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장소와 연인들의 공동체를 둘러싼 개념에 대해 만날 수 있고 2부-4부는 각각 '내밀한' 연인들의 장소와 '개방적인' 연인들의 장소, 그리고 보다 '원초적인' 연인들의 장소에 대한 상상적 탐색이 담겼다.

그가 소개하는 연인의 장소 중 한곳은 발코니다. 그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롯한 익숙한 사랑의 서사에서 발코니가 로맨틱한 느낌을 자아내는 것은, 그 곳이 은밀한 경계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 공간이 개방감과 은밀함의 느낌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은 발코니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발코니는 예기치 않은 외부의 투입처럼 기이한 열정이 느닷없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덧붙인다.

리처드 플라너너의 소설 '먼 북으로 가는 좁은 길' 속 사랑은 서점에서 일어난다. 저자는 연인들에게 기묘하게 어울리는 장소가 '서점'이라고 말한다. 서점은 '바깥 세계의 변잡함과 계산들을 피해 숨어드는 동굴같은

곳'으로 "진열된 책들 안에 들어 있는 문장과 사유들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계이적인 느낌은 서점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한다.

이번에 함께 나온 페미니스트 노동 연구자 이소진의 '경험이 언어가 될 때'는 저자가 현재의 자신을 구성한 여러 경험들과 감정들, 개인적 일화를 솔직하게 들여다 보고 성찰함으로써 일상의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방법을 안내해준다.

또 이탈리아사 및 유럽 현대사를 연구해온 서울대 서양사학과 장문석 교수의 '토리노 빨랑콜리'는 장대한 산업과 장렬한 혁명이 공존했던 곳으로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회정치적 실험실이었다는 토리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리즈는 앞으로 윤경희의 '방정 저택의 낮과 밤', 김태환의 '번역과 말', 심보선의 '시와 직업', 목정원의 '물입과 거리', 김수환의 '에이젠슈타인과 벤야민' 등으로 이어진다. <문화과지성사·1만4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